



페미니즘 영화 파헤치기

박진숙

1. 무엇이 페미니즘 영화인가?

페미니즘 영화를 파헤치려면 우선 무엇이 페미니즘(여성) 영화인지 알아야 한다. 유희미는 페미니즘 영화를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을 폭로하고 해방의 전망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정의한다. 단순히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었거나 여성 감독이 만들었다고 해서 페미니즘 영화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영화라고 부를 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 않다. 비주류 영화들 중에는 기혼 여성노동자의 탁아문제를 다룬 〈우리네 아이들〉(비디오)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사회 구조 속에서 조망해본 〈작은 폴에도 이름은 있으니〉(16mm), 아내 구타 문제를 다룬 〈굴레를 벗고서〉(16mm)와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변영주 감독의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비디오) 등이 있고, 주류 영화, 즉 충무로 영화로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씨받이〉, 〈우묵배미의 사랑〉, 〈안개기둥〉, 〈물위를 걷는 여자〉, 〈그대 안의 블루〉,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등을 그런 대로 꼽을 수 있다. 이 영화들 중에서 유희미는 페미니즘 영화의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킬만한 영화로 〈단지 그대가-〉를 지적한다. 여전히 열악한 형편이다. 문학에서는 80년대부터 문제성이 있고, 게다가 작품성까지 겸비한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해 영화 쪽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야 그나마 여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했듯이 몇 작품 되지 않고 작품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듯이 영화를 만드는 데는 “펜을 굵적거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경제 구조의 핵심에 있는 남자들이 자신들을 혈뜬는(?) 페미니즘 영화에 돈을 투자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또 하나 여성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창작 과정이 고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문학과 달리, 영화는 공동의 작업이므로 수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조율해야 하며, 짧게는 3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현지 촬영을 해야 하므로 집에 틀어박혀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다. 한 마디로 가정을 등지고 작업을 해야하는데, 독신이 아니고서야 ‘여자가 이런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다시 영화 내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이제까지 영화 속에서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가? 특히 우리나라 영화 속 여성상의 변천사를 보면, 1910년 경, 처음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무렵의 영화들, 〈춘향전〉, 〈장한몽〉 같은 영화들에서 여성은 두 부류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미덕인 절개를 지키는 여자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여자! 한국 전쟁이후 미국의 개방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자유부인〉(1955) 같은 영화가 등장하지만, 이때도 역시 〈춘향전〉은 있었고, 자유 부인은 춘향을 결코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춘향이는 모든 여성의 표본으로 머물러 있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도시로 간 처녀’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등장하였다. 〈미워도 다시 한번〉, 〈별들의 고향〉, 〈미스 양의 모험〉, 〈0양의 아파트〉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영화들에서 여성은 공순이의 고된 생활과 박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호스티스가 된다. 그리고는, 재수 좋아서 ‘착한’ 아찌(유부남) 만나 호강하고 아이도 낳지만, 본부인에게 머리끄덩이 잡히고 눈물 찼찼 흘리면서 아이는 빼앗긴 채 밀려난다. 이런 ‘호스티스류’ 영화들이 80년대까지 맹위를 떨친다. 90년대에 들어, ‘정상적인’ 여성을 다룬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앞에서 말한 영화들이 전부이고, 그나마 작품성도 떨어지고 대안 제시도 시원찮다. 세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 여성은 호스티스에서 일약 테러리스트로 지위가 격상한다. 그러나, ‘귀여운’ 테러리스트 최진실의 어쭙잖은 연기에 남자들은 실소했고, 여자들도 등을 돌렸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영화를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나마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영화의 소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속 여성의 모습도 다양해진다. 〈처녀들의 저녁식사〉 같은 영화에서 여성은 ‘감히’ 스스로없이 남자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어떤 남자는 보기보다 약골’이라는 등, ‘나는 아직 한 번도 오르가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등, 드러내놓고 성을 이야기하며, 프리 섹스를 즐긴다.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에서 여성은 극히 ‘정상’이다. 직업도 정상(학원 강사)이고, 그렇게 밝히지도 않는다. 그냥 학원 반대편 건물에 있는 은행에 근무하는 남자를 짝사랑하며, 용기를 내서 전포에다가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맛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라고 적어 내미는 여자다. 이 영화에서 학원 강사와 은행원의 사랑은 영화 포스터의 카피 그대로 보통 사람들의 사랑만큼, ‘그만큼만 특별한’ 사랑이다. 이렇게 여자를 자연스럽게 그려내면서 문제 의식을 담은 작품성 있는 페미니즘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2. 페미니즘 영화 비평의 경향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영화 비평은 90년대에 들어서야 싹을 틔운다. 페미니즘 하면, 한가한 여자들의 말놀음 정도로만 치부하는 분위기에다가 비평 방법도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한 페미니즘 영화비평은 아직까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 단행본 2권 정도가 출판한 것이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여성영화제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을 권장하는 조류에 힘입어, 페미니즘 비평을 모독했다가는 ‘마초’(남성우월주의자)로 몰려 큰코 다치는 분위기이다.

몇 개 영화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출한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영화비평 경향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1) 정신분석학적 비평이 지배적이며, 2) 여성과 남성을 대립 범주로 전제하고 있으며, 3) 여성 문제를 가부장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서구의 페미니즘 영화비평은 그 역사가 긴 만큼 좀더 다양하다. 대략 70년대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영화비평은 실천적 전략에서부터 세계 인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시각이 다양하다. 아네트 쿤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페미니즘이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전망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안경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영화들을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분석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기 위해 선택하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보면, 쿤은 페미니즘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영화를 여성운동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크게 페미니즘 영화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보기로 하자. 두 개의 분류 기준이 있다. 하나는, 1) 여성 억압이나 차별의 기원을 무엇으로 보는가이고(자본주의/가부장제), 두 번째는 미학적 전략으로써 2) 대안적인 형식을 제시하느냐/ 주제를 제시하는가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표로 보자.

영화이론	여성해방운동 여성 억압의 기원 = 계급 발생자본주의에 대한	여성 억압의 기원 = 남성 지배가부장제에 대한
주류 영화의 형식에 대한 대안적 형식	사회주의 다큐멘터리	〈어떤 여성에 대한 영화〉
주류 영화의 내용에 대한 대안적 주제	〈로자 룩셈부르크〉 〈테레사의 초상〉	〈침묵에 대한 의문〉 〈어느 여인의 사랑〉

(이 표는 유희미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위 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 부류의 페미니즘 영화가 나오지만, 주류 영화의 형식을 다르면서 여성 문제를 다룬 경우를 감안하면, 8 개로 페미니즘 영화를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페미니즘 영화는, 1)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형식, 2) 자본주의에 대한-대안적 주제, 3) 가부장제에 대한-대안적 형식, 4) 가부장제에 대한-기존 주류 영화 형식을 수용, 이렇게 4 종류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같은 영화는 1)에 속하며, 앞으로 살펴볼 〈바그다드 카페〉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변모를 꾀하는 연극적인 형식이라는 점에서 3)에, 기존의 영화 방식을 따르면서 여성의 일탈을 다룬 〈텔마와 루이스〉는 4)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 넘어가야겠다. 우리는 페미니즘 영화와 페미니즘 영화 비평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무엇을 페미니즘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와 페미니즘 영화에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이다. 자칫 우리는 페미니즘 영화 비평이 이런 영화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페미니즘 영화 비평이란 쿤의 말처럼, 페미니즘이라는 안경(관점)을 끼고 영화를 보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반드시 페미니즘 영화일 필요는 없다. 돈을 엄청 퍼부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스타일의 마초 냄새가 폴폴 나는 영화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난도질할 수 있다.

이렇듯 페미니즘이 하나의 비평 방법이므로, 다른 비평 방법과 충분히 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과 결합하면,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영화비평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볼 때, 여러 종류의 페미니즘 영화비평 방법이 가능해진다. 대략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학적 페미니즘 영

화비평, 기호학적 --, 심리학적 --, 마르크스주의 --, 레즈비언 --, 흑인 --, 실존주의적--, 독자 반응--, 화용론 --, 융적 신화 비평 -- 등. 이렇듯 페미니즘은 거의 모든 학문과 결합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영화비평가가 선택적으로 방법론을 선택한 후, 그 방법론과 잘 부합하는 영화를 비평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국대에서 강의하는 유지나와 영상원에서 교수로 있는 김소영이 페미니즘 영화 비평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파리 7 대학에서 기호학을 전공한 유지나는 영화적 전문성을 강조하며, '텍스트만 놓고 이야기하자,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빠져라'고 횡포를 부리는데 반해, 뉴욕대 영화이론과를 나온 김소영은 텍스트 외적인 요소까지 비평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평이라는 것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므로 '누구의 것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읽은 대로 너도 읽어!'라고 강요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비평이 좀더 통찰력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면서 참고서에 있는 설명을 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실제 텍스트 분석

3.1. <텔마와 루이스>(1991, 리들리 스콧 감독) - 여성들이여, 일상에서 탈출하라!

1991년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양성 간의 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남성과 여성의 자리 매김에 관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1991년 6월 24일자 <타임>지는 "양성 간의 전장에서 날아온 탄환처럼, <텔마와 루이스>는 어떤 기반도 획득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온다... 그들은 자유로워졌지만 단지 거칠어지고 파괴적이 됨으로써만 그러하다. 자유롭게 땅끝 저 너머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유현미의 글에서 재인용) 라고 말했는데, 여러 남성 영화 비평가들이 이런 지적을 했다. 이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여성 관객들이 흥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루이스가 텔마를 강간하려던 남자를 총으로 쏘는 장면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영화들은 어떠한가? 처음부터 끝까지 빨갛게 스크린을 물들이는 영화가 슬하게 많은데, 유독 이 영화를 놓고 폭력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루이스가 방아쇠를 당긴 시점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가 아니라, 냉정을 찾은 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간단한 줄거리를 살펴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자. 루이스와 텔마는 친구 사이이다. 루이스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독신 여자이고, 텔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이다. 두 사람은 버리고 버리던 주말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다. 텔마는 남편의 허락을 얻지 못해서(남편은 마치 '아빠'처럼 텔마 위에 군림한다) 망설이지만, 용기를 내어 메모 한 장 남기고 짐을 챙긴다. (만약을 대비해 남편의 총도 챙긴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한 간단한 요기도 하고 쉼 겸 들른 식당이 문제였다.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이 식당에서 텔마가 술기운에 한 남자와 격렬한 춤을 춘 후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할 뻔한 일이 발생한다. 심한 말이 오고 가는 와중에 루이스는 그 남자를 쏘 죽이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이후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잡히지 말자, 계속 가자"라고 하면서 도주한다. 도주하는 중에도 텔마는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루이스는 일을 수습해 가는데, 나중에는 텔마가 더 대답해 쳐서 강도짓을 하는데, 앞에서 한 살인과는 달리 정당방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 행위이다. 두 사람은 이제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경찰을 차에 가두고, 트럭에 불을 지르는 등 엇친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며 도주

를 계속하던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린다. 수 십대의 경찰차에 둘러싸여, 그들을 사건 초기부터 지켜본 형사로부터 자수할 것을 종용받지만 결국 텔마와 루이스 '새처럼' 벼랑 아래로 날아간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주류 영화 스타일의 융합판이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버디buddy 무비이며, 길을 따라 여행하는 로드 무비이다. 자동차 여행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속도감과 힘 등을 통해 관객들은 쾌감을 느낀다. 여행을 통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소심하고 '여성다운' 여자로써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던 텔마는 대담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된다. 루이스도 자신을 얹어매던 고된 식당 생활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한 '복수'를 치른다. 그러나, 여행은 이렇게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그 날개로 벼랑 끝으로 날아가게 한다. 텔마와 루이스는 일상을 탈출하여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선 통쾌하다. 남성 중심의 쾌락을 추구하는 시선은 여성의 것으로 탈바꿈하고(텔마는 JD(브래드 피트)의 엉덩이를 침을 흘리며 쳐다본다), 주인공은 아빠 같은 남편의 군림에서 독립한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간' 것이 문제이다.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죽음까지 이른 것이 문제이다. 일탈의 대가가 죽음일 줄 알았다면, 두 사람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텔마와 루이스>는 기존의 영화 속 여성의 이미지를 뒤엎는다. 기존의 영화에서 여자는 크게 두 부류였다. 착한 여자면, 나약하기 그지없어서 남자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고(니나,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나쁜 여자면, 음모를 꾀해서 남자 주인공을 곤경에 빠뜨린다(요부). <텔마와 루이스>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두 사람은 '전사'가 된다. 그리고는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가정을 등지고, 석양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듯이, 벼랑 너머로 사라진다.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이다. 영화에서 올바른 여성상은 실현 불가능한가? 다음의 영화도 이런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3.2. 바그다드 카페(1990, 퍼시 애들론 감독) - 남자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

라스베가스로 가는 사막 한 가운데 카페가 있다. 바로 흑인 가족이 경영하는 '바그다드 카페'다. 지나가는 트럭들에게 기름이나 넣어주고, 간단한 식사나 커피를 제공하는 이 카페는 그야말로 영망 진창이다. 그나마 커피 뽑는 기계도 고장나서 커피를 줄 수도 없다. 흑인 여주인 브랜다는 속삭이는 딸과 아들,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항상 짜증에 찢어 있다. 그나마 있는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가 버렸다. 브랜다는 뭐하나 잘 되는 일이라곤 없다는 표정이다. 이 카페에 한 독일 여자 자스민이 찾아온다. 여행 중에 남편과 뜻이 안 맞아 집을 싸들고, 혼자서 여행 책자에 유명하다고 소개되어 있는 바그다드 카페를 찾아온 것이다. 자스민이 오면서, 카페는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자스민 덕분에 아이(브랜다의 어린 아들의 아들) 울음 소리가 그치고, 마술로 카페에 손님을 모은 덕분에 장사도 잘 된다. (집 나간 남편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눈물짓고 있다.) 그러나, 자스민의 비자가 여행 비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쫓겨나면서, 바그다드 카페는 위기를 맞는다. 다시 예전의 초라하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다. 하지만, 얼마 후 자스민은 다시 돌아온다. 남편 없이 혼자서...

<텔마와 루이스>가 시종일관 동적이라면, 이 영화는 지루하리만큼 정적이다. 카페와 모텔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등장 인물도 예닐곱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연극적인 영화이다. 게다가 등장 인물들도 뭐하나 '볼거리(출중한 외모, 뛰어난 몸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소 못생긴 흑인 여

자애다가 뚱뚱한 독일 여자는 평범을 넘어서 '추녀'의 축에 들어간다. 이렇듯 이 영화는 주류 영화의 정해진 코드들을 거부한다. 순전히 서사와 연기, 음악으로 승부를 건다. 간간이 흐르는 여성 재즈 싱어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I'm calling you')와 바흐의 평균율이 영화의 호흡을 조절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수작으로 평가받는 이 영화의 결말은 얼핏 해피엔딩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성을 제외한 해피엔딩이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그것이다. 무뚝뚝하고 고집센 남편(자스민의 남편), 무능력하고 연약한 남편(브랜드의 남편)은 뭐 하나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버리고 여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연약한 존재라도 감싸안고 섬겨줘야지!

4. 나가며

위에서 살펴 본 두 영화에서처럼 소위 유명세를 치르는 페미니즘 영화들은 작품성과 문제 의식은 뛰어나지만 대안 제시가 '건전하지' 못하다. 남성을 적대시하여 제거해 버리는 과격파나 너무 독립적이어서 남편을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된 결말이다. 의외적이고 일탈적인 면이 있어야만 영화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주류 영화들의 작품성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올바른 대안까지 제시하는 '완벽한' 페미니즘 영화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두 성이 이룬 가족이라는 사회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면서 '의도하신' 바이다. 이런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탁월한 형식을 갖춘 페미니즘 영화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감한다.